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Korean J. Community Living Science
16(1): 123~134, 2005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성평등의식과 자녀교육지원

박 옥 임 · 임 정 순 · 김 정 숙
순천대학교 소비자 · 가족아동학과 · 순천금당중학교 · 동신대학교 간호학과

Androgynous Equalitarianism of Parents Recognized by Adolescents and Educational Support for Children

Park, Ok Im · Lim, Jeong Soon · Kim, Jeong Sook
Dept. of Consumer and Family-Child Studies,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Suncheon, Korea
Geumdang middle school, Suncheon, Korea
Dept. of Nursing, Dongshin University, Naju,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e research lies in investigating how the androgynous equalitarianism of parents recognized by adolescents and educational support for children differ in accordance with social and population factors. The subjects were 397 adolescents of secondary schools in Chonnam. The analysis of the results was carried out using SPSS/WIN 10.0 progra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Adolescents were found to recognize the androgynous equalitarianism in their parents differently in accordance with gender, birth ranking, academic record, and father education level. (2) Educational support of parents recognized by adolescents, showed some notable differences in accordance with type of school, birth ranking, academic record, place of residence, mother's age, father education level, form of marriage, and economic class. (3) The relationship between androgynous equalitarianism and Educational support of parents recognized by adolescents had a positive correlation. In conclusion, it is essential to provide an atmosphere wherein the budding children can display their utmost potentiality regardless of gender to grow independent way of thinking and behaving and ability. Also consistent willingness to practice education in androgynous equalitarianism for the realization of equal society for both men and women is believed prerequisite.

Key words: androgynous equalitarianism, educational support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환경과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독특한 유기체로 성장하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 가운데 인간이 출생하여 최초로 사회적 접촉을 하면서 기본적인 행동양식을 배워 나가는 핵심적인 교육의 장인 가정에서의

접수일: 2005년 1월 25일 채택일: 2005년 2월 27일
Corresponding Author: Park, Ok Im Tel: 82-61-750-3671
E-mail: parkok@sunchon.ac.kr

부모의 역할 및 태도는 자녀의 사회화 과정에 결정적 역할을 맡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압축적 근대화(Compressed Mordernization) 과정을 거친 한국사회의 대부분의 부모는 전통적인 성고정 관념 및 성역할 태도가 여전히 가정 안에서 뿌리내리고 있어 자녀들로 하여금 성고정 관념 및 성차별을 당연시 여기게 하고 있음(김승권 등 2000)은 부인할 수 없다. 그리하여 한국의 부모들은 가족 내 자원을 배분할 때 성별에 따라서 아들을 우대하며(이미정 1998) 대체로 교육은 자녀가 부모에게 크게 의존하는 청소년시기에 확고하게 자리잡음으로써 부모가 어떤 태도를 지니는가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다.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 여성의 교육수준 또한 급격히 상승해 왔음은 사실이나, 교육성취에 있어서는 남성에게 뒤쳐져 왔다. 가족의 배경이 자녀교육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을 고려할 때 남녀간의 교육 차이는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자원배분 과정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이진분 1995)고 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빈곤했던 시기에 가계 예산에서 교육투자 또한 성차별 현상이 있어왔다. 또한 현대 우리나라 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의는 교육이 사회적 성취의 중요한 도구로써 작용하므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대단히 높아 교육 제도와 정책에 영향을 미쳐 급속한 교육 팽창을 이루었으며(교육부 1999), 경제성장에 근간이 되는 인적 자본을 형성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따라서 부모들은 자녀교육을 최우선시하는 가치관을 형성하여 자녀교육에 온 힘을 쏟게 하고 자녀 교육비에 힘겨운 지출을 감당하게 하며 여러 형태의 자녀교육 지원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자녀교육 지원이란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제공하는 금전적, 시간적, 심리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녀교육 지원 중 금전적, 시간적 교육 지원은 자녀의 교육에 경제적, 물질적 수단이 요구되는 사교육이나 가시적 측면의 지원을 의미하며(문숙재 등 1996), 심리·과정적 교육 지원은 자녀의 정서적 만족과 학습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정신적으로 도움을 주는 비가시적 측면의 지원에 해당한다.

특히 자녀가 많은 가정에서는 여러 형제자매들이 한정된 자원을 놓고 경쟁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별은 부모가 자녀교육을 위해 자원배분을 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처럼 여러 가지 성차별 즉, 불평등의 문제 중에서도 성별에 따른 불평등의 문제는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문제이며, 상당한 수준의 사회발전 단계에 이르러서도 끈질기게 해결되지 않은 불평등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 정의가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다는 현대의 민주사회에서조차도 여성은 허구적인 평등을 누리고 있을 뿐, 실제로는 오랜 인류의 삶이 만들어 낸 가부장적 이데올로기(patriarchal ideology)와 사회구조의 성 정형성에 의해 성불평등을 겪고 있는 것이다(범윤경 1998).

인간은 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명제는 범세계적인 흐름이다. 우리의 성차별적 태도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또는 그 어떤 분야에서도 배제되어야 하며, 남녀의 역할에 대한 고정 관념이 사라지고 능력에 따라 동등하게 인정받으며, 자녀교육 지원 또한 차별함이 없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이 가정, 학교,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양성평등주의 의식 즉 '성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능력, 속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으며, 성과 관련되는 편견에서 자유롭고, 여성의 권리와 인권에 반하는 차별적인 행동을 승인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수정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태도'(Campbell et al. 1997; Helmreich et al. 1981; 김양희·정경아 1999)와 관행 확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선행 연구에서 자녀의 교육 지원에 관한 연구는 교육열과 관련된 분야에 그치고 있어 부모의 양성평등의식과 관련된 연구는 극히 희소한 편이다. 남녀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능력을 개발하는 교육 환경과 이를 격려하는 사회적 토양을 조성하는 창의적인 인적 자원을 개발, 육성할 수 있는 기회가 먼저는 가정 내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대의 가족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가정 안에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성평등의식은 사회인구학적 변인, 부모관련

변인, 부모영향 변인에 따라 어떠한지 분석해 봄으로써 성차별 현상을 개선하고 양성평등의식을 지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미래 사회의 꿈이며 주인인 청소년을 위한 부모의 자녀교육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석해 봄으로써 바람직하고 계획적, 의도적인 교육 지원이 자녀에게 투입될 수 있는 교육 지원의 필요성을 제언할 수 있을 것이다.

Ⅱ. 문헌고찰

1. 양성평등의식

오늘날은 평등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여성들은 남녀 평등한 관계를 이상으로 삼고 모든 영역의 협상시도를 가능한 것 또는 정당한 것으로 인식케 되었다. 이에 관한 연구(조미정 1992)에 의하면 고정된 성역할로 인한 불평등한 부부관계는 자녀양육에는 물론 사회 문제까지 야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였다. 진화주의자들은 집약 농경사회에서 심화된 남녀 불평등 관계는 산업사회 전기까지 지속되나 전문화가 실제로 이루어짐에 따라 점차 남녀관계는 평등주의적 방향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중산층 가족 대다수가 핵가족 형태를 취해가고 있으며, 특히 전업주부 가족의 경우에는 Parsons과 Bales(1995)의 묘사와 일치하는 남편의 '도구적 역할과 분담현상', 그리고 '경제적 지주인 남편과 그의 의존적인 아내'라는 새로운 형태의 부창부수(夫唱婦隨)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 이러한 산업 사회 특유의 성역할 분화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갈등없이 수용되며 이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는 전통적 부부관계와 근본적으로 상통하는 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부부간의 불평등한 관계는 가정생활 속에서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미래사회의 바람직한 남녀평등사회 구현에 걸림돌이 될 것이며, 개선되어야할 성차별은 더욱더 심각성을 띠게 될 것이다.

대중매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차별 의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정숙경 2000), 성차별의 원인은 다양하나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 해야할 것으로 성고정 관념을 탈피하는 사회적 차원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을 보고하였다. '성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능력, 속성, 역할에 대한 고정 관념을 가지지 않으며, 성과 관련되는 편견에서 자유롭고, 여성의 권리와 인권에 반하는 차별적인 행동을 승인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승인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태도'라고 규정한 양성평등주의의 검증 결과 평등 의식의 형성에 있어서 가장 차이를 나타내는 주요한 요인은 연령 요인으로서, 연령이 가장 현실적으로 평등 의식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내게 하는 요인이라 제시하고 있다(Twenge 1997; 김양희 · 정경아 1999). 이처럼 연령이 많을수록 양성평등의식 정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은 연령이 보다 양성평등의식을 지니는데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령이 많은 사람일수록 전통사회가 지니고 있는 성역할이나 성에 대한 고정 관념, 전통사회의 사회적 분위기나 영향 때문에 전통적인 성역할이나 성에 대한 고정 관념을 보다 많이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 사회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인 인식과 관행이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있어 남녀의 역할을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 관념에 맞추어 제한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개발하거나 활동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양성평등의식은 양성 중 어느 특정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이나 고정 관념, 차별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고 생물학적 차이를 사회 문화적 차이로 직결시키지 않으며, 남녀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 같고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식으로 여성과 남성의 적절한 역할 및 권한에 대한 태도, 자유와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한 공공정책에 대한 태도 등을 의미한다.

양성평등의식과 관련변인에 대한 선행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여성이 양성평등의식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정혜윤 2001; 현영자 2000), 연령이 낮을수록 더 높은 양성평등의식을 보이며(현영자 2000; 김양희 · 정경아 1999), 거주지역에 따라 양

성평등의식의 차이가 있다(노안령 2001)고 보고되고 있다. 그런데 선행 연구에서 성역할 의식에 관한 연구는 많으나 양성평등의식에 대한 선행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남녀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작은 밑거름으로써 자녀들에게 미치는 부모의 영향력과 역할 모델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때 부모의 양성평등의식은 자녀들이 양성평등의식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 변인이므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성평등의식에 대해 분석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사료된다.

2. 자녀교육지원

자녀교육지원이란 부모들이 자녀교육을 위해 제공하는 가시적, 비가시적 제반 여건과 활동을 말한다(심대영 1996). 부모의 자녀교육지원은 자녀의 정서적 만족과 학습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정신적으로 도움을 주는 행위로 학업성적 신장행위, 학습환경 조성행위, 학교교육 활동행위, 자녀관리 행위, 부모·자녀 유착행위 등이 해당된다.

자녀교육지원은 자녀가 정서적으로 안정된 마음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분위기나 환경을 조성해 주는 일이라든지 자녀에 대학 부모의 격려, 애정표현 등이 포함된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자녀교육지원은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교육에의 관심 및 참여도로 표현된다. 자녀의 수가 많고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과거에 비해 한 두 명의 자녀를 선호하는 오늘날의 부모들은 보다 더 자녀를 정서적 만족과 애정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교육적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교육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연구(이미숙 1994)에서는 학습활동에서 학교 수업만으로 입시준비를 하는 학생은 14%에 불과하고, 86%에 달하는 대부분의 학생이 학교 이외의 학습방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교육에 대한 일반적 실태를 보여주는 연구(정영숙 1996)에서는 과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62.3%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69.2%가 실제로 과외가 학습증진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과외형태에 대해서는 48.8%는 학원에, 17.5%는 개인과외, 19.2%는 그룹과외를 하고 있었다.

자녀교육지원에 관련된 선행 연구는 다양한 계층 및 연령층의 자녀를 대상으로 연구되어 왔다. 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도시 빈민지역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신선미 1990)와 부산지역 중산층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김희복 1992), 계층간 비교를 실시한 연구(김영화 1992)를 들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자녀 가정의 자녀교육 지원 행위와 학업 성취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김경희 1997),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부모의 자녀교육 지원 행위와 아동 인식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최홍규 1999)에 관한 연구가 있다.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고3어머니의 교육 지원 활동에 관한 연구(조을련 1998), 인문계 고등학생의 대학진학에 대한 학부모의 목적 의식과 교육 지원 활동에 관한 연구(이정화 1994),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자녀교육 지원 활동에 관한 연구(박현주 2001)등이 있다.

자녀교육지원과 관련변인에 대한 선행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을련(1998)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학생에 대한 부모의 교육지원활동이 높았고, 출생순위에서 첫째 자녀일수록, 성적이 상위권일수록,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수록,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정의 수입이 많을수록 교육활동지원에 적극적이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심대영(1996)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녀의 학업성취 수준이 높을수록, 도시지역에 거주할수록 자녀교육 참여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교육지원과 사회·경제적 지위와의 관계에서 학부모의 자녀교육 지원활동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많았다(이정화 1994; 심대영 1996; 김경희 1997; 조을련 1998).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자녀교육지원을 학업성적 신장 행위, 학습 환경 조성행위, 자녀 학교교육 활동 행위, 자녀 관리 행위, 부모·자녀간 유착 행위로 보고,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부모관련 변인에 따라 청소년이 부모의 자녀

교육지원을 어떻게 다르게 지각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전라남도에 위치한 도시지역(순천)과 농촌지역(고흥, 보성, 승주)의 중·고등학교 8개교에 재학중인 남녀 중·고등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할당 표집하였다.

2. 측정도구

1) 양성평등의식

양성 평등의식은 한국여성개발원(김양희·정경아 1999)에서 개발한 한국형 남녀평등의식 검사 개발 도구에서 제시한 총 80문항과 선행연구(박현주 2001)를 참고로 각 4개의 하위 영역별 10문항씩 40문항을 추출하여 예비조사를 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항을 각 하위 영역별 3문항씩 제거하고 28문항을 본 연구에 이용하였다. 응답지는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그렇다'에 5점, '대체로 그렇다'에 4점, '그저 그렇다'에 3점, '대체로 아니다'에 2점, '전혀 아니다'에 1점을 주었다. 점수 분포는 각 영역별 7점에서 35점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총 점수는 28점에서 1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양성평등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α값은 .92이었다.

2) 자녀교육지원

부모의 자녀교육지원은 자녀의 정서적 만족과 학습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정신적으로 도움을 주는 행위로 학업성적 신장행위, 학습환경 조성행위, 학교교육 활동행위, 자녀관리 행위, 부모·자녀 유착행위 등의 5개 영역을 말한다. 선행 연구(김경희 1997; 유형선 1998; 최홍규 1999)의 5개 영역 총 25문항을 예비조사 후 신뢰도 분석 결과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항을 5개 영역별 1문항씩 제거하고 20문항을 5점 Likert척도로 구성하였으며, '매우 그렇다'에 5점, '대체로 그렇다'에 4점, '그저 그렇다'에 3점, '대체로 아니다'에 2점, '전혀 아니다'에 1점을 주었다. 점수 분포는 각 영역별 4점에서 20점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총 점수는 20점에서 1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교육지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문항의 신뢰도인 Cronbach α값은 .89이었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2002년 2월 4일부터 2월 9일까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각각 40부씩 총 8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본 조사는 2002년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순천, 승주, 고흥, 보성 지역의 중·고등학교 8개교 42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수된 것 중에서 불완전한 질문지를 제외한 397부가 최종 분석에 이용되었다.

자료 분석은 SPSS 10.0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 통계 방법으로 분석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성평등의식과 자녀교육지원의 차이검정은 t-test와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양성평등의식과 자녀교육지원의 상관성 정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이 연구에 선정된 조사 대상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Table 1.에서 살펴보면, 먼저 전체 397명중 남학생의 비율이 46.6%, 여학생의 비율이 51.4%로 거의 같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학교유형으로는 중학교가 46.9%, 고등학교가 53.1%이며, 출생순위로는 첫째가 42.6%, 둘째가 33.8%, 셋째 이하가 23.7%이며, 성적 분포를 보면 중위권이 44.1%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 배분은 도시지역(순천)이 43.3%, 농촌지역(보성, 승주, 고흥)이 56.7%로 나타났다. 부의 연령은 31세 이상 40세 이하가 5.0%, 41세 이상 50세 이하가 80.9%, 51세 이상이 11.6%로 41세 이상 50세 이하가 가장 많은 연령대이며, 모의 연령은 31세 이상 40세 이하가 29.5%, 41세 이상 50세 이하가

Table 1. General Features of Adolescents Surveyed

N=397

Class			Frequency (N)	Percentage(%)
Social Demographical Factors of Adolescents	Sex	Male	193	48.6
		Female	204	51.4
	School	Middle	186	46.9
		High	211	53.1
	Birth Rank	First	169	42.6
		Second	134	33.8
		Third&Above	94	23.7
	Research Level	High	123	31.0
		Middle	175	44.1
		Low	97	24.4
		N/A	2	0.5
	Residential Area	Urban	172	43.3
		Rural	225	56.7
Parent's Factors	Father Age	31-40	20	5.0
		41-50	321	80.9
		51&Above	46	11.6
		N/A	10	2.5
	Mother Age	31-40	117	29.5
		41-50	258	65.0
		51&Above	14	3.5
		N/A	8	2.0
	Father Career	Middle&lower	139	35.0
		High School	155	39.0
		College&Above	98	24.7
		N/A	5	1.3
	Marriage Class	Matchmaking	153	38.5
		Love	175	44.1
		Matchmaking&Love	61	15.4
		N/A	8	2.0
	Economic Class	High	94	23.7
		Middle	254	64.0
		Low	49	12.3

65.0%, 51세 이상이 3.5%로 모의 연령 역시 41세 이상에서 50세 이하의 연령 분포가 가장 높아 대부분 중·고등학생을 첫째 또는 둘째 자녀로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정도를 보면, 부의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상이 63.7%이고, 결혼형태는 연애혼이 44.1%로 가장 많으나 중매혼도 38.5%로 비슷하였다. 또한 경제수준은 상이 23.7%, 중 64%, 하 12.3%로 대체로 중간 정도의 경제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Table 2. Difference of Androgynous Equalitarianism of Parents Recognized by Adolescents according to Social Demographical Factors and Parent's Factors of Adolescents

Factor		Class	Androgynous Equalitarianism of Parents								
			Father			Mother			Total		
			Avg	SD	D[a)]	Avg	SD	D[a)]	Avg	SD	D[a)]
Social Demographical Factors of Adolescents	Sex	Male	3.23	.41		3.21	.42		3.23	.39	
		Female	3.56	.47		3.52	.52		3.54	.45	
		Birth Rank	-7.037***			-6.377***			-6.664***		
	School	Middle	3.46	.44		3.34	.46		3.40	.43	
		High	3.35	.50		3.39	.53		3.40	.47	
		t value	2.264*			-1.112			-.015		
	Birth Rank	First	3.42	.50	A	3.41	.53		3.43	.47	B
		Second	3.48	.50	A	3.38	.50		3.43	.48	B
		Third&Above	3.28	.36	B	3.27	.40		3.59	.36	A
		F ratio	4.624*			2.088			3.094*		
	Research Level	High	3.30	.47	B	3.29	.53		3.31	.47	B
		Middle	3.48	.47	A	3.41	.46		3.45	.43	A
		Low	3.39	.47	AB	3.39	.52		3.40	.45	AB
		F ratio	4.757**			2.141			3.035*		
	Residential Area	Urban	3.37	.52		3.41	.52		3.41	.49	
		Rural	3.43	.44		3.33	.47		3.38	.42	
		t value	-1.125			1.528			.567		
Parent's Factors	Father Age	31-40	3.51	.61		3.51	.57		3.54	.59	
		41-50	3.40	.47		3.35	.50		3.38	.45	
		51&Above	3.44	.46		3.45	.46		3.44	.40	
		F ratio	.652			1.632			1.174		
	Mother Age	31-40	3.37	.51		3.39	.52		3.40	.49	
		41-50	3.43	.46		3.35	.49		3.40	.43	
		51&Above	3.34	.41		3.45	.39		3.45	.36	
		F ratio	.557			.405			.079		
	Father education level	Middle&lower	3.34	.38		3.30	.46	B	3.31	.39	B
		High School	3.42	.47		3.36	.47	B	3.41	.43	AB
		College&Above	3.49	.58		3.49	.57	A	3.52	.53	A
		F ratio	2.442			4.152*			5.392**		
	Marriage Class	Matchmaking	3.41	.48		3.38	.51		3.41	.47	
		Love	3.36	.46		3.32	.52		3.36	.45	
		Matchmaking &Love	3.53	.47		3.47	.43		3.50	.40	
		F ratio	2.871			1.776			2.065		
	Economic Class	High	3.43	.54		3.35	.52		3.42	.49	
		Middle	3.41	.44		3.39	.48		3.40	.43	
		Low	3.32	.52		3.31	.55		3.33	.46	
		F ratio	.759			.587			.618		

*p< .05 **p< .01 ***p<.001

D[a)] :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3. Difference of Psychological &Process Supports according to Related Factors

Factor		Class	Psychological &Process Supports		
			Average	SD	D[a)]
Social Demographical Factors of Adolescents	Sex	Male	3.62	.62	
		Female	3.49	.74	
		Birth Rank		1.875	
	School	Middle	3.42	.69	
		High	3.67	.66	
		t value		-3.463**	
	Birth Rank	First	3.61	.77	A
		Second	3.59	.63	A
		Third&Above	3.39	.57	B
		F ratio		3.275*	
	Research Level	High	3.82	.52	A
		Middle	3.52	.72	B
		Low	3.28	.68	C
		F ratio		18.044***	
	Residential Area	Urban	3.74	.67	
		Rural	3.42	.66	
		t value		4.647***	
Parent's Factors	Father Age	31 - 40	3.46	.89	
		41 - 50	3.59	.68	
		51&Above	3.28	.58	
		F ratio		4.047	
	Mother Age	31 - 40	3.63	.75	A
		41 - 50	3.53	.64	A
		51&Above	3.05	.77	B
		F ratio		3.759*	
	Father Career	Middle&lower	3.38	.57	B
		High School	3.54	.76	B
		College&Above	3.83	.63	A
		F ratio		12.132***	
	Marriage Class	Matchmaking	3.50	.64	AB
		Love	3.66	.66	A
		Matchmaking&Love	3.41	.83	B
		F ratio		3.758*	
	Economic Class	High	3.75	.64	A
		Middle	3.56	.65	A
		Low	3.15	.79	B
		F ratio		11.918***	

*p< .05 **p< .01 ***p<.001

a) :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성평등의식

Table 2는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부모 관련 변인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성평등의식의 차이를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성평등의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 출생순위, 성적, 부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아버지의 양성평등의식은 성별, 학교유형, 출생순위, 성적에 따라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양성평등의식은 성별, 부 학력에 따라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종합해 보면, 부모의 양성평등의식은 성별에 따라 평균 5점 만점 중 여자 평균 3.54, 남자 평균 3.23으로 여자 집단이 남자 집단보다 부모의 양성평등의식을 높게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출생순위가 셋째 이하인 집단 평균이 3.59, 첫째이거나 둘째 집단의 평균이 3.43으로 출생순위가 셋째 이하인 집단이 출생순위가 첫째이거나 둘째인 집단보다 부모의 양성평등의식을 높게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에 따라서는 성적이 중위권인 집단 평균이 3.45로 가장 높고, 하위권인 집단 평균이 3.40, 상위권인 집단의 평균이 3.31로 가장 낮게 나타나 중위권과 하위권 집단간에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성적이 중위권인 집단이 성적이 하위권인 집단보다 부모의 양성평등의식을 더 높게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 학력에 따라서는 부 학력이 대학 졸업 이상인 집단의 평균이 3.52, 고등학교 졸업 집단의 평균이 3.41, 중학교 졸업 이하 집단의 평균이 3.31로 나타나 중학교 졸업 이하의 집단과 대학 졸업 이상 집단간에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부 학력이 대학 졸업 이상인 청소년 집단이 부 학력이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 집단보다 부모의 양성평등의식을 높게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자녀교육지원

Table 3은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부모 관련 변인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자녀교육지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자녀교육지원은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중 학교유형, 출생순위, 성적, 거주지역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부모관련 변인중 모 연령, 부 학력, 결혼형태, 경제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유형에 따른 부모의 자녀교육지원은 t값 -3.463, 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고등학교 집단이 평균 5점 만점 중 3.67, 중학교 집단 평균이 3.42로 고등학교 집단이 중학교 집단보다 부모의 자녀지원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출생순위에 따른 부모의 자녀지원은 F값 3.275, 5%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출생순위가 첫째이거나 둘째인 집단이 출생순위가 셋째이하 집단보다 자녀교육지원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성적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자녀교육지원은 성적이 상위권인 집단의 평균이 3.82로 가장 높고, 중위권인 집단 평균이 3.52, 하위권인 집단 평균이 3.28순으로 낮게 나타나 F값 18.044, 0.1%의 유의수준에서 세 집단간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성적이 상위권인 집단이 중위권 집단보다, 중위권인 집단이 하위권 집단보다 부모의 자녀교육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거주지역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자녀교육지원은 F값 4.647,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도시지역 평균이 3.74, 농촌지역 평균이 3.42로 도시지역 집단이 농촌지역 집단보다 부모의 자녀교육지원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모 연령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자녀교육지원은 F값 3.759,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모 연령이 31세 이상 40세 이하 집단의 평균이 3.63으로 가장 높고, 41세 이상 50세 이하 집단의 평균이 3.53, 51세 이상 집단의 평균이 3.05로 가장 낮게 나타나 모 연령이 50세 이하인 집단과 51세 이상인 집단간에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자녀교육지원의 차이는 모 연령이 50세 이하 집단이 51세 이상 집단보다 부모의 자녀교육지원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부 학

력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자녀교육지원은 F비 12.132, 0.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부 학력이 대학 졸업 이상인 집단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집단간에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부 학력이 대학 졸업 이상인 집단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집단보다 자녀교육지원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결혼형태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자녀교육지원은 F비 3.758, 5%의 유의수준에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결혼형태가 연애혼인 집단의 평균이 3.66, 중매혼인 집단의 평균이 3.50, 중매반·연애반인 집단의 평균이 3.41순으로 낮게 나타나 부모의 결혼형태가 중매혼인 집단과 연애혼인 집단간에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부모의 결혼형태가 연애혼인 집단이 중매혼인 집단보다 자녀교육지원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경제수준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자녀교육지원은 F비 11.918, 0.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경제수준이 상인 집단의 평균이 3.75로 가장 높았으며, 중인 집단의 평균이 3.56, 하인 집단의 평균이 3.15순으로 낮게 나타나 경제수준이 중 이상인 집단과 하인 집단간에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경제수준이 중 이상인 집단이 경제수준 하인 집단보다 자녀교육지원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성평등의식과 자녀교육지원의 상관관계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성평등의식과 자녀교육지원 변인 간의 관계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이 분석에 포함된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성평등의식에서는 아버지의 양성평등의식과 어머니의 양성평등의식 간에 아주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성평등의식은 부모의 자녀교육지원이 높을수록 부모의 양성평등의식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자녀교육지원은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성평등의식, 어머니의 양성평등의식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성평등의식이 높을수록 부모의 자녀교육지원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요약 및 제언

이 연구는 가정 안에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성평등의식과 자녀교육지원이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부모관련 변인, 부모영향 변인에 따라 어떠한지 살펴보고, 상호 관련성과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해 봄으로써 남녀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양성평등의식 확립과 남녀 차별이 없는 동등한 자녀교육 지원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선

Table 4. Correlations among Parent's Influence Factor, Androgynous Equalitarianism of Parents and Education Support of Children

	Androgynous Equalitarianism (Father)	Androgynous Equalitarianism (Mother)	Education Supports
Androgynous Equalitarianism (Father)	1.00		
Androgynous Equalitarianism (Mother)	.930***	1.00	
Education Supports	.713***	.739***	1.00

*p<.05, **p<.01, ***p<.001

행연구를 토대로 아버지의 양성평등의식에 관한 28문항, 어머니의 양성평등의식에

관한 28문항, 부모의 자녀교육지원에 관한 20문항, 부모영향 변인에 관한 6문항,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12문항 등 총 94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예비조사 후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여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도시지역인 순천시와 농촌지역인 승주, 고흥, 보성지역의 중·고등학교 8개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420부를 배부한 후 405부를 회수하였고, 그 중 응답이 불완전한 것 8부를 제외한 397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성평등의식은 성별, 출생순위, 성적, 부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이 여자일 때, 출생순위가 첫째이거나 둘째인 집단이, 성적이 중위권인 집단이, 부 학력이 대학졸업 이상인 집단이 부모의 양성평등의식을 더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자녀교육지원은 학교유형, 출생순위, 성적, 거주지역, 모 연령, 부 학력, 결혼형태, 경제수준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유형이 고등학교일 때, 출생순위가 첫째이거나 둘째일 때, 성적이 상위권일 때, 거주지역이 도시일 때, 모 연령이 31세 이상 50세 이하 집단에서, 부 학력이 대학 졸업 이상일 때, 결혼형태가 연애혼일 때, 경제수준이 중 이상일 때 자녀교육지원을 많이 받고 있다고 지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성평등의식은 자녀교육지원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청소년은 부모의 양성평등의식이 높을수록 부모의 자녀교육지원을 높게 지각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부모의 양성평등의식은 자녀의 사회화 과정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여 부모 스스로 양성평등의식 고취에 힘써야 하며, 일상생활 속에서부터 작은 실천을 이루어 자녀들이 성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적인 마음과 태도,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가정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한 의식 교육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기관 및 다른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간상은 성취지향적이며 기존의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사람임을 청소년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며, 교육 주체자인 모든 부모와 교사들은 성차별적인 인식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을 깨달아 청소년의 양성평등교육의 중요성을 가정과 학교 교육활동 속에서 의식적,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양성평등교육은 유아기부터 가정, 학교, 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셋째, 현대 사회의 능력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한 구별됨이 없는 균등한 자녀교육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21세기 정보·지식 사회를 맞이하여 가정의 경제수준이 자녀의 교육에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는 교육환경 조성이 제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가정과 학교의 교육 주체자들은 남녀평등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 모든 영역의 책임을 함께 나누며 생활 속에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서로 해결 방식을 토론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양성평등교육을 실천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이루어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교육부(1999) 양성평등 학교문화 선생님이 만듭니다. 교육부.

김경희(1997) 한 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지원행위와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승권(2000) 한국가족의 변화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양희·정경아(1999)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 개발. 99연구보고서. 한국 여성개발원 250-254.

김영화(1992) 한국 교육의 종합 이해와 미래구상(III) -학부모와 자녀교육편-. 한국교육개발원.

김희복(1992) 학부모 문화 연구 ; 부산지역 중산층의 교육열.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노안령(2001) 아동의 성역할정체감과 남녀평등의식

간의 관계.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문숙재 · 김순미 · 김성희(1996) 자녀의 인적자본형성을 위한 교육비 지출의 결정요인. 한국 가정관리 학회지 14(2), 171-184.
박현주(2001)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교육지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범윤경(1998) 학교교육과 성평등의 관련 탐구. 한국교원대학교.
신선미(1990) 학교 교육에 대한 희망과 좌절.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심대영(1996) 학부모의 학교 효과성에 대한 인식과 자녀교육지원활동의 차이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형선(1998) 도시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의 결정 요인 : 인천시 고등학교와 그 부모를 대상으로. 인하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미숙(1994) 자녀교육열과 대학입시. -한국 가족의 교육열 과잉 현상과 관련 가치관-, 한국 가족학 연구회편. 서울: 하우, 49-84.
이미정(1998) 가족 내에서의 성차별적 교육투자. 한국사회학 32집 봄호, 63-97.
이진분(1988) 양성평등과 여성 고등교육의 발전 방향. 연구논문집: 대학교, 상명여자 대학교, 제34호, 37-42.
이진분(1995) 성평등 문화를 여는 교육. 서울: 또 하나의 문화.
이정화(1994) 대학진학에 대한 학부모의 목적의식과 교육지원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숙경(2000) 평등의식의 저해(형성)요인과 자유주의 페니미즘 전략. 한국여성개발원.
정영숙(1996) 가계의 교육비 지출과 선별가설-사교육비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8(1), 206-207.
정혜윤(2001) 중학교 가정과 교사와 기술과 교사의 양성평등의식과 양성평등교육 실천차이.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미정(1992) 부부권력에 관한 연구. 효성여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을련(1998) 고3 어머니의 교육지원활동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홍규(1999) 학부모의 교육지원행위와 아동인식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현영자(2000)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교사의 성역할 정체감 및 의식 연구.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Campbell B, Schellenberg EG, Senn CY(1997) Evaluating measures of contemporary sexism.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 89~102.
Helmreich RL, Spence JT, Wilhelm JA(1981) "A psychometric analysis of the personal attributes questionnaire". Sex Roles 7, 1097~1108.
Parsons T, Bales RF(1995) Family : Socialization and interaction process. New York : The Free Press.
Twenge JM(1997) Changes in masculine and feminine traits over time : A meta-analysis. Sex Roles 36, 241-273.